

『纂圖方論脈訣集成』 편찬과 朝鮮中期의 脈學의 成就

- 『찬도맥결』의 원저자 고양생의 생몰년대를 중심으로 -

허 중¹⁾ · 안 상우²⁾

Publication of 『Chan Do Bang Ron Mack Kyul Gip Seong』
and the accomplishment of 'Pulsation' in Choseon Dynasty
-An inquiry into Koyangsaeng's date of 『ChanDoMackKyul』's author-

Heo jong · Ahn sang woo

In oriental medicine, 'Mack' is the most important medical method of human body. From Wangsukhwa's 『Mackkyung』 in Jin dynasty to 『mackjinki』 in modern technology, medical use of mack is so wide. Over the years, many 'pulsation' books had published. Among them, Koyangsaeng's 『ChanDoMackKyul』 had an influence on many doctors. But also many doctor criticized his book for the absence of orthodoxy.

In the middle of chosun era, Hur jun published 『Chan Do Bang Ron Mack Kyul Gip Seong』. 『Chan Do Bang Ron Mack Kyul Gip Seong』 had been us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Chan Do Bang Ron Mack Kyul Gip Seong』 is the medical book that The King 'Seon-jo' ordered to make Hur jun for correcting the faultiness of pulse medical book(ChanDoMackKyul). through the inquiry of it, we expect accomplishment of 'Pulsation' in Chosun Dynasty and reveal the koyangsaeng's date.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1.서론

『纂圖方論脈訣集成』은 1581년 선조 왕명에 의해 許浚이 六朝時代 高陽生의 원저자인 『纂圖脈訣』을 교정하여 만든 것이다. 東醫寶鑑(1613)을 완성하기 전인 1612년 광해군 4년에 개간하였다. 이 책은 원래 王叔和의 脈經을 7언의 노래가사로 만든 脈訣을 교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맥결이 의가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다가, 원대에 쓰인 『纂圖脈訣』이란 책이 고려말에 들어와 조선의과고시 과목으로 사용되어지게 된다.³⁾ 현재 허준이 교정할 때 사용한 『纂圖脈訣』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원작과 정확한 비교·대조를 할 수 없다. 또한 원작자로 알려진 육조시대 高陽生의 활동시기가 부정확하고, 이에 더불어 맥결의 내용들은 역대 의가들에 의해 표절시비에 끊임없이 휩싸였다.

더구나 한국에서도 『纂圖脈訣』의 원저자인 高陽生과 이 서적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이해와 소급된 문제들의 해결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纂圖脈訣』의 원작자로 알려진 高陽生의 생물연대를 소급하고, 아울러 역대문헌을 참조하여 표절시비에 관한 여러 의가의 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함께 중국 맥학이 『纂圖方論脈訣集成』을 통하여 조선의 맥학 정리 과정에 미친 영향과 조선맥의 상황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고양생에 관한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책이 만들어지는 조선중기 脈學에 관한 상황과 앞으로의 연구에서 전개되어질 『纂圖方論脈訣集成』을 저작한 허준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3) 李朝醫學及針灸醫取才時講書變遷表.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三木榮. p.295

世宗12年 (醫學)	世祖10年 (醫學)	成宗2年 (醫學)	成宗3年 (醫學)	成宗16年 (醫學)	成宗16年 (鍼灸學)	英祖2年 (醫學)	高宗2年 (醫學)
纂圖脈		纂圖脈	纂圖脈	纂圖脈	纂圖脈	纂圖脈	纂圖脈
銅人經	銅人經		銅人經	銅人經	銅人經	銅人經	銅人經
直指方 直指脈	直指方	直指方	直指方	直指方	直指脈	直指方	直指方
得效方		得效方	得效方	得效方			
和濟方		和濟方	和濟方	和濟方			

2. 본론

1) 『纂圖脈訣』을 중심으로 한 脈學의 전승내력

우선 脈訣에 관한 유래를 살펴보자. 脈訣이라는 단어는 脈經의 ‘經’과는 달리 맥에 관한 노래가사를 말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쉽게 음율에 맞추어 부르는 그 시대의 노래가사이다. 高陽生의 脈訣이라는 단어는 ‘高陽生編著脈訣’이라는 고유명사로 대두되나, 엄밀히 말하면 그 연원은 高陽生이란 인물이 처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⁴⁾ 이처럼 脈訣이 처음으로 일반명사화 되어 붙여지게 된 후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가들에 의해 脈訣이란 서명이 쓰여 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후 내경과 난경을 소재로 그 당시 맥에 체계를 세운 王叔和의 ‘脈經’이 출현한 이후에 맥에 관한 최고의 저작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診脈學이 王叔和의 「脈經」을 전후로 하여 발달한다. 王叔和는 고대 중국의 診脈法을 총정리 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靈樞와 難經에 나타난 脈에 관한 정리이다. 어느 학자는 王叔和의 脈法이 難經을 잇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의 맥에 관한 정리는 한의학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손목을 세 손가락으로 짚는 寸, 關, 尺 脈法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짚는 부위와 깊이를 분명히 하는 한편, 각 부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질병의 계통을 확립하였고, 모든 병의 상태를 24개의 脈象으로 정리해 냈다.⁵⁾⁶⁾ 그가 정한 이런 방법은 현재의 한의학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쳐 지금의 한의사들도 생생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다.

王叔和의 「脈經」 이후 중국의 診脈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탄다. 하나는 「脈經」의 어려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脈經」의 핵심을 추려내어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脈經」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다.⁷⁾ 전자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高陽生의 王叔和脈訣이다. 高

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87 素女脈訣, 夫子脈訣은 禮記正義에서 인용된 책으로 지금은 현존하진 않지만, 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때, 많은 서적들이 맥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리라 본다.

5)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 236쪽

6) 중국의 診脈學의 흐름은 高文鑄 主編, 『醫經病原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前言」, 1997, 19-23쪽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7) 高文鑄 主編, 앞의 책, 「前言」, 21쪽

陽生은 진맥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脈經」의 내용을 추려 7언(七言)으로 된 노래 모음집 「脈訣」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許浚이 교정한 「纂圖方論脈訣集成」의 저본이 된 책이다.⁸⁾ 「脈訣」은 “겨우 1권 인대다 내용도 비교적 간단하고, 또 歌訣로 되어 있어 임상가가 기억하기가 쉽다. 따라서 실제 임상가에게 준 영향은 「脈經」보다 크고, 심지어 「脈經」의 지위를 빼앗아버린 그러한 책이었다.”⁹⁾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脈學의 흐름은 脈訣의 영향력 아래 기존의 脈經의 의미를 잊고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맥경이 없어지고 맥결만을 위주로 의학을 일삼았으니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병으로 여기고 맥경으로 돌아가자는 북고주의 제창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아래에서 언급할 진언이나 이시진, 이연하등의 의가들이 그 폐해를 알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연구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西晉시대 王叔和의 맥경의 정확한 원문을 대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존의 변형된 책들을 가지고서만 연구를 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

우리가 유학의 대가로 알고 있는 晦庵 朱子(1130-1200년)는 그의 책에서 ‘古人의 진맥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거늘 今世에는 오직 寸關尺에서 脈보는 방법만을 고수하나 關이란 것이 매우 분명하지 않다. 유독 세속에 脈訣이 전하여지나 문사가 매우 비천하니 이는 王叔和가 저술한 본래의 글이 아니다. 脈訣에 곧바로 掌後高骨을 가리켜 關이라 하였으나 역대의 고명한 의사들은 그 책이 가짜임을 알고, 드디어 버리고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라고 할 만큼 맥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왕숙화의 이름을 가탁한 저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脈訣의 문제점은 조선에까지 자연스레 이어지며 폐해를 담고 있었으니, 선조가 허준에게 纂圖脈을 교정하라고 한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맥학의 흐름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중기는 조선의학의 흐름에 있어서 정점에 있었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세종때 『醫方類取』나 『鄉藥集成方』 등 의서의 편찬등으로 자주적인 의학의 부흥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기이다. 이는 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그 당시 뿐 아니라 조선중기 이전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적인 교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맥에

8) 楊醫亞 主編, 『中國醫學史』,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40-41쪽

9) 洪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118쪽

관한 교류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92년 신라 효소왕 元年때 중국과 처음으로 의학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 온 의학박사들이 학생을 가르쳤다. 本草經, 甲乙經, 素問, 鍼經, 脈經, 明堂經, 難經을 신라에 가져와 전달했으며, 박사2명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하여 최초의 중국과 한국의 의학교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보면 이때 王叔和의 脈經이 전래된 것으로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다. 즉, 한국에는 적어도 허준이 책을 만들기 전에 약 9백년 전에 맥학서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의과고시에 脈經을 의과과목에 포함시켜 한국의 의생들의 의과시험에 맥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이렇듯 기본적인 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12년부터 고종2년까지 조선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纂圖脈이라는 과목으로 의과시험에 脈을 제일 처음의 과목으로 올려놓았다.¹²⁾ 조선만 하더라도 시험과목들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른 책들은 변화가 있거나 첨가, 삭제가 되지만, 纂圖脈, 銅人經, 本草, 素問등은 조선 초부터 말까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시험과목을 차지하고 있다.¹³⁾ 그만큼 기본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조선에서는 맥의 전례가 「脈經」보다는 「脈訣」을 위주로 해서 전해지게 된다. 그 이유를 許浚은 “조선 초의 의술 수준이 소원하고 거칠어 「脈經」 전 책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¹⁴⁾이라고 말했지만,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니었고 앞서 말한 「脈經」의 체계가 혼란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脈經」은 편찬 체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어떤 것은 출처를 밝혔지만 대부분 밝히지 않았고, 「脈經」이라 명하고도 證治만 조금 말하고 근본적으로 맥을 말하지 않은 자료까지 뽑아 넣는 등 선택된 재료도 엄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자료를 배열하는 데에도 계통이 없어서 같은 종류의 것을 앞뒤로 나누어 놓았고, 서로 모순된 부분도 많이 눈에 띄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脈經」에 담긴 무수한 내용이 실제 임상에서는 별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¹⁵⁾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져 오던 「脈經」의 아류

10) 삼국사기 39권

11) 科學制度는 光宗10년에 製造, 明經 및 기타 諸業과 같이 실시되어 그 후 醫科考試에 수차의 급제를 보았는데, 仁宗 14년에는 그 고시의 방법을 醫業式, 呪禁式으로 나누어 貼經, 破文, 破義理 등으로써 행하게 되었다. -韓國醫學史 金斗鍾 1981년 서울

1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2, 일본 295쪽-주2) 참조

13) 위의책 295-296쪽

14) 허준, 『纂圖方論脈訣集成』, 「跋文」, 여강출판사 영인본, 1994, 457쪽

작인 「脈訣」이 조선중기 선조 때에 이르러 변화가 생기게 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초공사에 문제점을 드디어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물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2) 원저작의 표절 논란에 관한 논거

맥에 관한 전승과정에서 꼭 없어서는 안되는 맥결의 성립과 그 전승과정의 이해는 다음에 다루어질 許浚의 『纂圖方論脈訣集成』이라는 책을 더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맥에 관한 내용보다는 우선 전승내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纂圖脈訣』의 원작자로 알려진 高陽生의 생몰연대에 관한 여러 의가의 설을 살펴보고 그들이 맥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도 또한 살펴볼 것이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여 다음에 전개 되어질 여러 의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高陽生의 활동연대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삼인방에서 본 陳言의 주장인 六朝時代와 여러 의가들의 각각 五代時代와 北宋時代로 나누어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규명을 통해 원저자인 高陽生에 관한 정확한 생몰연대를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三因方』을 중심으로 한 논거의 시작

본 연구자는 陳言¹⁶⁾의 『三因極一病證方論』(이하 三因方이라 칭한다.)의 「脈經序」를 살펴보던 중, 高陽生에 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三因方』에는 「脈爲醫門之先…六朝有高陽生者,剽竊作歌訣,劉元賓從而解之。」¹⁷⁾ 라고 표시하면서 六朝時代¹⁸⁾ 즉, 唐 以前에 활동한 인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진언이 방대한 분량의 저서

15) 홍원식,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1987, 117쪽

16) 陳言(1131-1189) : 南宋의 醫家. 字는 無擇, 靑田人. 方脈에 精通했던 그는 복잡한 질병을 病源에 따라 外因六淫 內因七情 및 不內外因으로 크게 분류하고, 『三因極一病證方論』 六卷을 저술(1174년)하였는데, 그 이 책의 첫머리에 脈經序가 들어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陳言은 治方뿐만 아니라, 脈에 매우 관심을 기울인 醫家인 것이다.

17)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卷一 『脈經序』

18) 六朝時代는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시대적인 것을 살펴볼 때, 육조시대는 남북조 시대중에 장강 이남 지역에 들어선 오, 동진, 송, 제, 양, 진(약 317년-589년)의 여섯 왕조를 일컫

중에 권두에 두고 있는 맥경서는 그 역시 맥에 관한 중요성을 피력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양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三因方에서는 맥결의 내용을 수용한 부분이 눈에 띈다.¹⁹⁾ 이는 그 당시 맥결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보다 출판연대가 以前인 현존하는 서적에서는 高陽生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다기원윤이 쓴 『中國醫籍考』에 脈訣을 설명하면서 삼인방의 앞 부분에 郭長陽醫序跋 부분을 인용하면서 맥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²⁰⁾ 광장양이란 인물이 어느시대의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주자의 말을 인용한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1200년대 후반의 인물로 보여진다. 中國醫籍考의 특징은 책을 소개하면서 그에 관해 언급한 의가들을 시대적인 순차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三因方의 陳言보다 전대의 인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진언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 간주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여튼 여기서 주장한 高陽生의 시대적 배경은 六朝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西晉시대 王叔和가 脈經을 쓴 다음의 시점으로 高陽生의 활동연대를 잡아야 하므로 六朝時代라고 하면 이 왕조의 영멸기간을 대략 317년부터 589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高陽生에 관한 생물년대의 언급이 시작된다. 이 책은 허준이 『纂圖脈訣』을 교정할 당시 조선시대에 통용되어졌던 高陽生에 관하여 기록된 몇 안되는 책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高陽生은 육조시대의 인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허준은 이 책을 근거로 그의 책을 저술할 때 발문에 高陽生에 관하여 六朝時代의 인물로 규정했던 것이다.

許浚은 당시 高麗時代부터 교과서로 사용된 三因方을 근거로 그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六朝時代의 高陽生이라고 許浚이 쓴 것은 발문을 살펴볼 때 三因方을 참조는 했으나 단순히 三因方만의 뜻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은 아닌 듯 싶다. 왜냐하면 陳言의 글에 쓰여진 “六朝有高陽生者剽竊作歌訣”은 許浚이 『纂圖方論脈訣集成』을 만들 때, 발문에 그대로 인용하였다.²¹⁾ 다만, 陳言이 언급한

는다.

19) 맥결에 나오는 7표,8리,9도에 관한 내용을 취하여 맥에 관해 쉽게 접근하고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채택하였다.

2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93

21) 삼인방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삼인방의 “六朝有高陽生者剽竊作歌訣”의 부분에서 약간 수정하여 “六朝時有高陽生者剽竊而作歌訣”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삼인방과

‘劉元賓從而解之’부분을 제외하였는데, 진언이 말한 대로 劉元賓²²⁾과 같은 脈學을 심도 있게 연구한 의가가 단순히 高陽生의 글을 따라 해석하였다는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허준이 『纂圖方論脈訣集成』에서 三因方의 내용 중 앞의 부분을 넣고 뒤의 내용을 제외한 것은 그 뜻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책을 살펴볼 때, 劉元賓의 주석을 많이 인용을 한 것을 보게 된다.²³⁾ 이는 허준이 劉元賓의 의견을 많은 부분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허준이 책을 저작할 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宋代에서부터 조선중기에 이르는 시점까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허준 또한 왕명에 의해 이러한 책의 저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허준 역시 이 책을 교정할 당시에는 高陽生의 정확한 생몰연대를 모르고 단순히 삼인방에 언급된 내용만으로 인식하였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허준 당시에도 高陽生 저작의 『纂圖脈訣』에 관한 책 내용만 있을 뿐 저작자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陳言이 ‘脈經序’에 언급한 내용은 ‘六朝時代 高陽生이란 인물이 맥경을 표절하여 가결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표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 당시 맥학서로 널리 쓰이던 脈訣의 오류가 심했기 때문이며, 그 근본원인은 脈經 원문이 부정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러 의가들에 의해 맥에 관한 연구를 할 때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로 보아 陳言의 집필시기에 高陽生의 시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부정확한 원문에 관한 시비가 있었다.

진언(1131-1198년)이 활동한 시기는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되어 1257년까지 건재할 당시의 중후반기인 북송시기이다. 이에 앞서 송나라 희령때 校正醫書局(1057-1097年)의 개설을 통한 의서의 재편성 과정을 이루어 내면서 기존의 의서들을 정리하고 의학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송희령(1068-1077年)시기에 그 당시까지 구전이나 필사본으로만 전해져 오던 여러 저작물들을 1057년에 설립된 校正醫書局에서 본격적으

허준시대 이전까지 고양생에 관하여 언급되어진 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삼인방을 근거로 고양생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22) 劉元賓(1022-1086년)이라는 醫家は 北宋 때 사람으로, 通眞子라는 號를 쓰고 있다. 그의 저작으로 ‘通眞子補註王叔和脈訣, 通眞子續注脈賦, 脈訣機要, 脈要新括, 診脈須知, 通眞子傷寒訣, 傷寒括要’ 등이 있는데, 이를 보면, 맥에 관하여 매우 정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纂圖方論脈訣集成』에도 通眞子の 註가 다른 의가에 비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보여진다.

23) 우선 1.診脈入式, 2.五臟六腑와 각 臟腑, 3.左右手診脈만을 살펴보면, 通眞子(劉元賓 宋) -1. 9회 2. 24회, 3. 3회에 걸쳐 각 문장에 관한 주석을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의가들 보다 많은 부분 인용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허준은 그 당시 서적의 부재라는 불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유원빈의 설을 많이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로 책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서 여러 분야에 획기적인 체계를 세우게 된다. 즉, 송대 이전의 의학 서적들은 활자판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필사(筆寫)하거나 각판(刻版)에 의존하여 유전(流傳)됨에 따라 적지 않은 착오(錯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校正醫書局은 素問, 傷寒論, 金匱要略, 金匱玉函經, 脈經, 針灸甲乙經,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大泌要등의 고대 의서에 교정 정리 간행의 일을 행하였다. 이는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활용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독자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교정의서국의 이러한 노력은 의학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⁴⁾

그러나 잠시 의문을 가져보자면 校正醫書局에서 발간된 서적중 脈訣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송 이전에 나왔던 정교하지 못하였던 서적들의 교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전에도 많이 사용되어 졌던 맥결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수궁이 안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나온 서적들 중 맥에 관한 서적이 맥경 외에는 다른 서적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나라의 대대적인 편찬사업을 할 당시 그 서적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대표적인 맥경의 편찬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평가를 해본다. 하지만 그 당시 脈訣의 쓰임이 광범위 했고, 그 당시 종합의서라고 판단되어 질 만큼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진언의 책안에 서두 부분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은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유원빈의 생몰연대가 교정 작업 시기와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점²⁵⁾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이전에 王叔和 脈訣이라는 서적의 존재는 무시할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뒤에 나오는 의가들의 언급한 내용들로 미루어 맥결에 관한 문제점이 그 후에 더욱 더 심해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陳言이 말대로 高陽生의 활동연도가 六朝時代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의가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2.五代의 人物로 규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五代時代라고 하면 907년부터 960년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24) 韓醫學大辭典 醫史文獻篇.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1985 P.19-20

25) 위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유원빈의 생몰연대가 1022-1086년이고, 교정의서국에서 1057-69년동안 존재하면서 1068-69년도에 맥경의 출판이 되므로, 유원빈과 왕숙화맥결의 만남은 1070-80년대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혼란기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시기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오대십국이라는 중국왕조가 생멸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오대는 당의 멸망으로부터 송의 건국까지 화북에서 흥망한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의 5왕조의 시대이다. 이들은 지방 군벌이 세운 정권으로, 무단정치를 통해 종래의 문벌귀족을 몰락시켰다. 같은 때 화북 이외의 지역에서 흥망을 거듭한 정권이 10개국에 이르렀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5대 10국이라고도 한다. 이 동안에 군주권이 강화됐고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생겨나 대변혁기가 됐다. 이 당시에 歌訣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맥결과 같은 7언 음율의 노래가사들이 출현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불어 의학 또한 다른 것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벌귀족의 몰락으로 인한 서적들의 황폐화와 유실등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더욱 더 심하였을 것이며, 이에 더불어 의가들도 의료를 실천함에 많은 문제점이 보였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만한 계기가 또한 이곳 저곳에서 보여 졌으리라 생각된다. 즉 서적의 부재로 인한 실생활에 편리하고 쓰임이 편리한 그런 것들이 생겼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맥결의 부재로 王叔和脈訣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역사는 이러한 추측으로 인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확한 고문의 확인작업이 없는 의학사는 확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陳言이 말한 高陽生의 활동연대가 六朝時代라면,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후대의가들이 그에 관한 생물년대에 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고양생에 관한 첫 언급으로 평가되는 삼인방은 후대로 갈수록 그 부분에 관한 진위여부에 시비를 거는 의가들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래에 보이는 李時珍이나 李延壽 정도가 될 것이다. 특히 이시진은 謝縉翁과 陳孔碩의 이야기를 하면서 陳言이 劉元賓이 고양생을 따라 주를 달았다고 하면서 맥결에 대해 깊이 아는 것 같으나, 스스로 七表, 八裏, 九道脈의 명칭을 지었다고 하면서 이는 맥결을 상세히 읽지 못한 소치라고 비판하고 있다.²⁶⁾ 그들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五代를 중심으로 논한다.

우선 高陽生의 생물년을 五代로 규정한 의가들을 살펴보면, 王世相이란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은 이시진의 맥결고증에도 나오는데,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河東王世相²⁷⁾曰, “五代高陽生著『脈訣』,假叔和之名,語多抵牾,辭語鄙俚,又被俗學妄註.

26) 아래주 37)참조

27) 元代 인물.字는 季隣, 號는 清溪子, 山西蒲州人, 呂楠의 門人. 官職은 延川知縣에 이름. 평소 朱震亨을 추앙하여 “醫學은 丹溪에 이르러서 집대성되었다.” 하였고, 의서로는

世醫家傳戶誦,茫然無所下手,不過籍此求食而已,於診視何益哉.²⁸⁾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 즉 왕세상은 다른 의가와 같이 고양생의 맥결에 관하여 비속한 언어로 표현된 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의가들이 맥결을 통해 임상의 편리함을 구하긴 했지만, 그 비속함으로 학문의 깊이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왕세상은 원대의 인물로 주단계를 추앙하여 의학에 매진한 인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왕세상 역시 고양생이 왜 오대시대의 인물인지 정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中國歷代醫家傳錄』²⁹⁾을 살펴보면, 高陽生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첫머리에 ‘內科醫로서 五代때 인물’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³⁰⁾ 물론 그 안에도 삼인방이나 빈호맥학, 그리고 중국의학대사전등을 참고로 하면서 여러 시대로 규정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나, 서명 바로 뒤에 이를 종합하는 시대를 규정한 것은 여러 문헌의 참고로 인한 결론일 것이다. 또한 『中國醫籍考』를 살펴보면 다기원운 역시 오대로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유원빈이 송나라 熙寧과 元祐사이에 생존하면서 이 책에 주를 단 인물로 규정을 해놓으면서 이것으로 고양생이 송이전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王叔和脈訣이 隋唐志에는 보이지 않으며 그 표현기법이 매우 용렬하고 비속하므로 결코 六朝時代의 저작물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五代時代의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또한 醫籍考에 宋熙寧初. 林億校正脈經.序中於脈訣.未嘗見稱.陳孔碩序始云.脈訣出而脈經隱.愚疑脈訣.惑熙寧以後人所作.是不可得知也.³²⁾ 라고 표현을 하면서 북송이라고 이야기하는 의가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 『宋以前醫籍考』 역시 吳崑의 「脈語序」를 인용하여 ‘五代高陽生僞撰’이라는 글을 써서 五代時代의 인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아마도 오대와 송의 근수한 시대적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의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중국의 시를 이야기할 때 음을 붙여서 노래형식의 글을 쓰는 것을 ‘歌’라 칭한다. 이는 五代때부터 시작하여 宋에 이르러 활기

『醫開』 7권이 있다.

28) 『瀕湖脈學』의 脈訣攷證中

29) 『中國歷代醫家傳錄』 p346

30) 『中國歷代醫家傳錄』 p.346

河東王世相曰,“五代高陽生著『脈訣』,假叔和之名,語多抵牾,辭語鄙俚,又被俗學妄註.世醫家傳戶誦,茫然無所下手,不過籍此求食而已,於診視何益哉.”

3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95

3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94

를 띠게 되는 형식이다. 처음의 음율은 매우 엄격하여 七言의 음율을 정확히 갖추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송대로 가면서 많이 퇴색되어지면서 꼭 중요한 부분만을 갖추는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는 의학에 이르러 어떻게 접목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어떻게 보면 왕숙화맥결을 지은 고양생이란 인물은 시에도 매우 관심이 깊은 인물이라고도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물론 전문적인 의가였다면 시에 관한 접목을 바로 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형식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음율에 맞추어 이해하고 실용하기 편리하게 쓴 맥에 관한 책이라면 오대시대에 나온 책이라고 조심스레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의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바로 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송나라에 이르러서야 기초적인 시적 격식을 갖추는 것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하튼, 여러의가들이 오대로 규정한 것은 수당시기에 서적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문장의 비루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가들의 주장은 조금 더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아래 부분에 보여지는 의가들의 주장과 대비되어진다.

3.北宋시기의 人物로 규정- 脈訣考證, 脈訣彙辨을 중심으로

許浚보다 바로 전대의 인물로 李時珍³³⁾의 『瀕湖脈學』을 살펴보면 高陽生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王叔和를 가탁한 宋代의 인물이 脈訣을 지어 脈學을 어지럽혔다고 하였다³⁴⁾. 여기서 주의하여 볼 것은 李時珍은 許浚과 활동 연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³⁵⁾ 李時珍이 『瀕湖脈學』을 쓸 당시의 시기는 許浚이 왕명을 받아 교정할 당시보다 약 17년 정도 앞선 시기이다. 지금처럼 서적의 왕래가 빈번하지 못하고 쉽사리 서적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서적을 참조하지는 못한 듯하다. 그리고 전란에 의해 중국과 서적의 왕래가 원활하지 못한 것

33) 明代 醫家(1518-1593) 雅號는 瀕湖, 저서로 本草綱目,瀕湖脈學,奇經八脈攷,五臟圖論,命門攷 등이 있다.

34) 瀕湖脈學中 脈訣攷證 진진과학기술출판사 自序 1994
李時珍曰:宋有俗子,杜撰脈訣,鄙陋紕繆,醫學習誦以爲權與逮臻頽白,脈理竟昧

35) 빈호맥학은 명나라 세종때 甲子년(1564)에 저작되었다. 이는 허준이 찬도맥결을 편찬할 당시(1581년)보다 17년 앞선 것이다.

도 있겠으나, 동의보감에서도 李時珍의 저작물들은 참고도서로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瀕湖脈學』에 대한 연구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된 高陽生의 저작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三因方에서 시작되지만, 이시진에 이르러서야 좀더 高陽生의 활동시기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시작된다. 『瀕湖脈學』의 脈訣攷證에서 李時珍은 脈訣이 왕숙화의 글이 아니라고 첫 문단에 기재하면서, 脈訣의 저자에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즉, 왕숙화가 활동하던 시기인 西晉에는 아직 歌括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송나라 중세에 누가 가탁 저술하여 맥을 익히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 책이라고 하였다.³⁶⁾ 또한 그는 錢溥라는 醫家의 말을 인용하면서³⁷⁾, 맥경을 지은 왕숙화의 글들만 고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맥결에 의해서 醫經의 이치가 희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대개 왕숙화가 세상에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므로 그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에 더해 처음으로 高陽生에 언급한 진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³⁸⁾ 진언자신도 맥경을 상세히 읽어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陳孔碩이라는 인물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中國醫籍考』에 나와 있는 맥결에 관한 설명 중에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즉 송대에 인물로 어머니가 약하여 스스로 처방을 구하려다 우연히 왕숙화맥결을 구하게 된다. 그 내용이 너무나 천박하였는데, 어느 지방의 노인에게 다시 맥결 10권을 얻게 되었다. 이 책은 황제,기백,편작의 이야기와 장씨의 상한론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이 매우 정밀하였으니, 진실로 왕숙화의 글인 것을 깨달았다. 嘉定己巳년에 역병이 돌아 왕명에 의해 백성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다시 맥결을 구하여 보니 교정의서국에서 만든 책과 내가 그전에 본 책이 같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내 맥결이 나오고 그후에 맥결이 사라졌으며, 의가들은 맥결에 빠져 맥결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³⁹⁾

이렇듯 李時珍은 그의 책에서 맥결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맥학에 관한 정확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단순히 의사노릇을 하여 돈벌이

36) 『國譯 瀕湖脈學 四言舉要 奇經八脈攷 附脈訣攷證』 朴旻, 대성출판사, p.207-210, 1992.

37) 瀕湖脈學中 脈訣攷證 진진과학기술출판사 p.69 1994

38) 위의 책, p.208-209

廬陵謝縉翁曰 今稱叔和脈訣 不知起于何時 宋熙寧 初校正脈經 尚未有此 陳孔碩 始言脈訣出 而脈經隱, 則脈訣 乃熙寧以後人作耳 有陳無澤 三因方言 高陽生剽竊作歌訣劉元賓從而和之 其說 似深知脈經者 而又自著七表八裏九道之名 則陳氏亦未嘗詳讀脈經矣.

3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94

에만 치중하게 쉽게 만드는 기술적인 맥식만이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明代에는 王叔和가 지은 脈經이라는 책이 존재했었으나, 의가들 사이에서는 권수도 많고, 의미도 이해하기 힘든 脈經보다는 脈訣에 손이 쉽게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당시 중국에서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맥결에 관한 표절시비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李時珍은 기존에 나와 있었던 脈訣의 교정들을 거의 다 참조하여 脈訣에 관한 오류를 지적하고 의가들이 왕숙화의 맥경을 공부하도록 『瀕湖脈學』을 쓴 것이다. 아마도 그 당시 중국의 맥학을 대변한 것이 李時珍이라면, 조선에는 허준이 그에 대응하는 의가였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저작물을 시대적인 차이가 근소한 시점에서 조선으로 들여오는 것이 쉽지 않아 참조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 허준과 李時珍이 만나 맥에 관해 이야기했으면, 좀더 맥에 관한 커다란 성과가 양국간에 생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진언과 李時珍에 이어 제일 본격적인 논변을 펼친 의가는 청나라에 李延昆이다. 그의 저서인 『脈訣彙辨』을 살펴보면 高陽生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는 自敍에서 高陽生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그가 宋나라 시대의 醫家라고 표현하고 있다. 「高陽生考」에서 저자는 『瀕湖脈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하면서⁴⁰⁾ 北宋以後의 의가라고 고양생의 활동연대를 규정하였다.⁴¹⁾ 瀕湖脈學을 모두 참고하여 보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빠지거나 더해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명 이후에 나와 있는 서적과 그전에 나와 있는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자신의 기준 하에 정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아마도 이 시점에는 許浚의 『纂圖方論脈訣集成』도 중국에 전래되어 있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여하튼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 三因方に 나와 있는 고양생의 활

40) 脈訣彙辨, 李延昆, 高陽生考中, 上海과학기술출판사, 1963,

「河東王世相曰, “五代高陽生著『脈訣』, 假叔和之名, 語多抵牾, 辭語鄙俚, 又被俗學妄註. 世醫家傳戶誦, 茫然無所下手, 不過籍此求食而已, 於診視何益哉. 廬陵謝縉翁曰 今稱叔和脈訣 不知起于何時 宋熙寧 初校正脈經 尚未有此 陳孔碩 始言脈訣出 而脈經隱, 則高陽生乃屬北宋以後人矣. 朱晦翁夫子特斥其鄙淺僞書, 此誠千秋之鈇鉞.」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뒷부분의 脈訣攷證에서 쓰인 脈訣 乃熙寧以後人作耳인 부분을 밑줄친 윗부분과 바꾸어 놓은 것이다.

41) 自敍에서 인용한 것은 자신이 직접 책의 차례를 만들면서 기록한 내용이므로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한 것이라 여겨지며, 뒤에 나와 있는 北宋이라는 것은 다른 의가의 내용을 잠시 빌려서 표현을 한 것이다. 하여간 두 의견을 조합해보면 송의 시대가 960-1279년이고 북송의 시대가 960-1127년이므로 宋의 前期와 中期의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동연대는 六朝時代로, 다기원윤이나 宋以前醫籍考에서는 五代時代로, 瀕湖脈學에 나와 있는 바로는 宋代로, 李延昉이 표시한 부분 또한 宋代로 귀결이 된다. 여기서 어느 시대이다라고 결론을 정확히 내리기에는 힘든 상황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歌訣이라는 것이 脈經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고, 五代에서 시작하여 宋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넓게 잡아 五代에서부터 유원빈이 생존해 있던 시기인 1080년대까지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좁게 보자면 의학에 문학적인 감성을 바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고, 더구나 맥결이 나타난 후에 비로서 맥경이 사라졌다고 나와 있으므로, 교정의서국에서 맥경이 만들어진 후에 시기로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다. 즉, 적어도 1070년부터 1080년 정도 사이에 고양생이라는 인물이 존재했으며 그가 지은 책이 왕숙화의 이름을 빌려 세간에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3. 결론

許浚이 왕명에 의해 만든 『纂圖方論脈訣集成』이라는 책은 선조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맥학서이다. 이 책의 저본이 된 찬도맥결의 저자에 관해 많은 의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여러 문헌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纂圖脈訣』을 지은 高陽生이라는 저자는 실존인물이긴 하나, 각 의가마다 활동년대를 확실히 규정하지 못했다.
2. 『纂圖方論脈訣集成』은 조선의 맥학서로서 삼인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 고양생이란 저자에 관하여 陳言은 六朝時代, 다기원윤은 五代, 李時珍은 宋代, 李延昉은 宋代로 규정하였다.
4. 필자는 校正醫書局에서 脈經이 출간된 후와 劉元賓의 활동시기(즉, 1070-80년)가 고양생의 활동연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參考文獻》

-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三木榮. 1962. 일본.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
高文鑄 主編, 『醫經病原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前言」, 1997.
楊醫亞 主編, 『中國醫學史』,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허준, 『纂圖方論脈訣集成』, 「跋文」, 여강출판사 영인본, 199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卷一 『脈經序』
韓醫學大辭典 醫史文獻篇.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瀕湖脈學中 脈訣攷證 친진과학기술출판사 自序 1994 .
『中國歷代醫家傳錄』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攷 附脈訣攷證』 朴晷, 대성출판사, 1992.
脈訣彙辨, 李延昞, 高陽生考中,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63.
三國史記